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 정부 법적 자문제도 도입, 온라인 홍보 등 4개 부문 12명에 총 1,6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2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3월 제1회 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 수여식을 개최했다.

먼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범정부 법적 자문제도 도입 및 상시 법령정비체계 구축’에 기여한 김태원 과장, 손지민 사무관, 오정애 서기관, 강민정 서기관, 유수연 사무관이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자문 조직의 신설과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상시화, 법령의 품질 유지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개편 등을 전담하는 법령정비 조직 신설을 이끌어 내어, 법제처가 정부 내 ‘법률 자문 조직(인하우스 로펌)’ 역할과 상시 법령정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제처 온라인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 및 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현상필 주무관, 강예지 사무관, 유혜진 주무관, 정미래 주무관이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브이로그, 챌린지 등 뉴미디어의 경향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일상 공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법제처 홍보 콘텐츠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들이 기획 및 제작한 ‘현문현답’ 콘텐츠는 구체적인 법령정비 사례를 인터뷰와 인포그래픽으로 풀어내, 유튜브 조회수 86만 회, 좋아요 536건을 기록하는 등 딱딱한 법령정비 관련 정보를 국민의 일상과 와

당은 콘텐츠로 풀어내 정책 공감대를 확산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수여식에서 ‘징검다리상’도 함께 신설하여 시상했다.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직과 동료들에게 변화의 디딤돌을 놓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첫 회인 이번 시상에서는 2명에게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법제교육과 성연일 사무관은 헌법교육의 대국민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법제처는 기존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소와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2025년 한 해 헌법 교육 실적의 89%를 올해 1분기에 조기 달성하며 헌법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운영지원과 이한나 주무관은 청사 내 노후화된 휴게 공간을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 및 설계하여 재구성했다. 청사관리본부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공간 조성 승인을 받았고, 안전 규제로 가벽을 설치하기 어려워지자 카펫 타일과 화분 배치로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등 제약을 창의적으로 풀어냈다. 공간 재구성을 통해 직원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 혁신 및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혜경	(044-200-6551)
		담당자	사무관	신연재	(044-200-6555)